

하천 7개소 정비사업 총력

전주시, 재해 예방·생태 복원 위해 총사업비 1216억원 투입 추진

전주시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 하천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216억원을 투입해 하천 7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하천을 확장해 수해로부터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독배·원당·가동·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진·금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이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하천 통수단면(물 따위의 유체가 이동하는 통로의 수직 절단면 크기)을 확보하기 위해 폭과 높이를 넓히는 개수공사와 함께 제방 축조 및 호안공사, 자연형 여울 및 생태탐방로 조성, 교량 설치 등이 진행된다.

독배·원당·가동·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3년까지 하천의 폭을 넓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낮은 저지대 재해위험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진동과 금상동 일원에서 하천을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파손된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하천 긴급수술을

통해 버려져 있는 임목폐기물과 폐비닐, 일반쓰레기 등 170여 건을 정비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노후·파손된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도 정마찰이 오기 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움푹 패었거나 폭 꺼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책로는 산책하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운동기구와 훼손된 벤치와 안내판, 구명환 등도 정비기로 했다.

정진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하천은 수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중요한 재난방역역할과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생태를 유지하는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의회가 12일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강동화 시의장 “서로 존중·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 최선 다할 것”

전주시의회,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정주영 같이교육연수원 대표 ‘세상을 바꾸는 알람’ 주제

전주시의회가 12일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주영 같이교육연수원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알람’이란 주제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정립,

젠더폭력의 현황과 사회구조적 문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젠더 폭력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동화 의장은 “젠더 폭력 예방은 임시방편적 캠페인이나 구호가 아닌 사회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지속적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

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진행됐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싱가포르 고등학생, 전주로 랜선 수학여행 떠나

래플스 고등학교 학생·교사들, 영상으로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둘러보고 교류

싱가포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주로 랜선 수학여행을 왔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주의 고등학생 친구들과도 교류했다.

전주시는 12일 싱가포르 래플스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20여 명과 랜선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래플스 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에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전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수학여행을 오게 됐다.

이날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한옥

마을과 전라감영, 영화의 거리,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의 대표 관광지들을 둘러봤으며, 전주한지를 활용한 청사초롱 만들기, 판소리 체험 등 한국전통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K-컬처(문화)에 매우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BTS(방탄소년단)의 춤을 배우는 시간을 진행했으며, 전주지역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문화에 대해 소통하기도 했다.

온라인 수학여행에 참여한 빅토리아 교사는 “지난 3년간 글로벌 체

험학습지로 방문해온 전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며 “온라인으로도 전주를 만나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정병희 전주시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랜선 수학여행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리적 한계를 극복한 랜선투어 상품을 개발해 전주를 해외 학생들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일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맞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희망보드미 거점기관, 업무 재협약 체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 박주중)는 12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재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9개 권역의 희망보드미 거점기관과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추진해온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점기관 중 일부 기관이 변경되면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평화사회복지관 ▲참사랑나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선내머뚬종합사회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금안노인복지센터 ▲덕진노인복지관 ▲덕진지역자활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에 전문적인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등 통합 사례관리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재협약을 체결했다.

박주중 공동위원장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참여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

이라며 “공동의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보드미 거점기관과의 협력과 교류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치료 시급한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추진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해 마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보호수와 노거수 중 치료가 시급한 평화동2가 왕버들 등 21그루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

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수목 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수목에 부패가 진행된 부분 제거,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지지대 및 당김줄 설치 등을 진행하고, 안내 입간판도 설치해 나무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보호수 25그루, 노거수 73그루 등 총 98그루를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통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 희귀목 중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이 지정된다. 노거수는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장차 보호수 지정 후계목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보호수에 준해 관리된다.

/김윤상 기자